

# 영업익 1.3조 ‘대박’... “5년 내 낸드사업 매출 3배 키울 것”

##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모바일 수요 증가로 175% 꺾증 이석희 사장 컨퍼런스콜서 공언 “인텔 인수로 성장·가치 창출”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이어가며 ‘슈퍼 사이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석희 사장이 직접 컨퍼런스콜에 참석해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배경과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8조 1288억원에 영업이익 1조2997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 17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 수요 증가와 함께 신규 콘솔 게임기 출시 영향도 컸다. 출하량도 전분기 대비 D램이 4%, 낸드가 9% 늘었다.

단, 전분기보다는 다소 실적이 악화됐다. 매출 6%, 영업이익 33%가 줄었다.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과 SSD 수요는 다소 약세를 보였으며, 메모리 가격도 하락한 탓이라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앞으로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4분기에도 모바일 시장이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

계절적 수요 강세를 이어가며 PC용 제품 판매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메모리 가격까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개선을 위해 10나노급 2세대(1y) LPDDR5 판매 확대 등 모바일 수요에 집중함과 동시에, 고용량 낸드플래시를 결합한 멀티칩 패키지(uMCP) 및 고용량 제품과 초고성능 메모리(HBM)에 집중해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8단 기반 낸드 제품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이석희 사장이 직접 참석해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



SK하이닉스 이전 행복문.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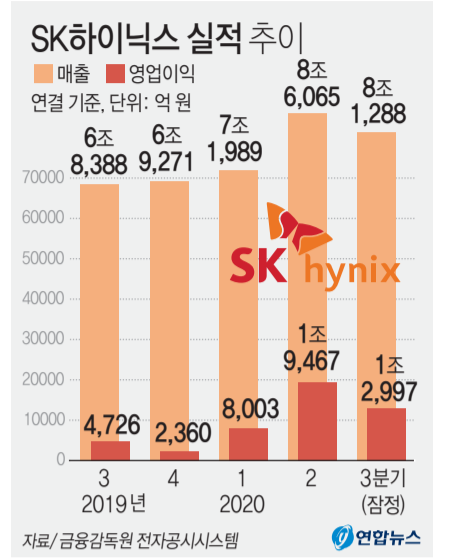
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3년 이내에 낸드 사업을 자생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5년 후인 2025년에는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업에서 SSD 비중을 40% 중반까지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구체적으로는 인텔 낸드 사업 부문이 QLC 기술력이 업계 최대이고 PCIe 인터페이스 표준을 주도하는 등 우수한 펌웨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사업 영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어 이산화탄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최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RE100 가입에 따라 2050년까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약속도 확인했다.

인수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내년 말 7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과 영업현금 흐름을 활용하고 이후 외부조달과 자산 이동도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키옥시아 투자 지분은 사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남뉴스

할 예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련 공장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노후화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아직 2~3세대 정도 가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공정상 원가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Q&A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핵심 인력이 유출될 수 없도록 계약상 장치를 마련해왔으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 자연스럽게 통합을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차입금 쌓이는 하림... 재무안전성 ‘빨간불’ ‘휠 사태’ 확산... 바람 빠진 타이어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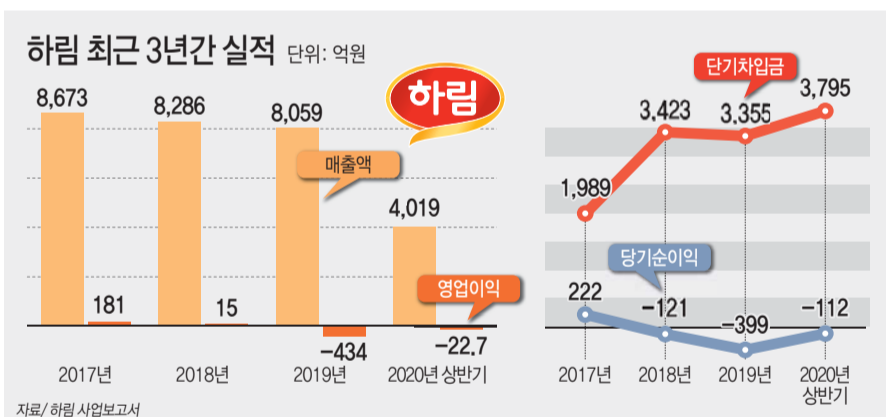
실적 부진에도 대규모 투자 단행 육계 공급과잉 등 악재에 적자 부채비율 단기차입금 비중 높아 코스닥 중견기업부로 ‘강등’

하림그룹의 핵심 계열사 하림의 재무 안정성이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실적 내림세로 적자인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 등을 단행하면서 하림의 단기차입금이 증가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림은 사모채 시장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단기차입금 비중은 높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하림의 부채 총액은 5772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37.5%다. 특히 단기차입금이 3795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401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2억 원, 당기순이익은 -112억 원으로 적자가 늘었다.

하림의 실적은 2017년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하림의 매출액은 2017년 8,673억 원에서 2018년 8,286억 원, 2019년 8,059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22억 원에서 -121억 원, -399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영업이익도 181억 원에서 지난해 434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

하림의 실적 악화에는 주 사업인 육계 부문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최저 임금 인상, 경기불황 등으로 프랜차이즈 증가세 및 소비는 둔화했다. 반면 수입산 닭고기 증가 등으로 육계 공급과잉이 장기화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자료/하림 사업보고서



익산시 망성면 하림스마트팩토리 건설현장

하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익산에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하면서 2,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공교롭게 이때부터 실적 하락세가 동반됐고, 차입금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육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 현상이 2018년부터 본격화됐음에도 하림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전북 익산 스마트팩토리에 2,600억 원을 막대한 투자를 불사했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에서 스마트팩토리에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림의 총 차입금 규모가 2017년 2128억 원 수준

에서 지난해 4329억 원으로 2년 새 103.4%나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01.4%로 같은 기간 10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로 지탱하면서 부채비율도 220.9%로 작년 말보다 19.5%포인트 높아졌다.

결국, 지난 5월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소속 분류가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강등됐다. 거래소는 기업규모와 재무조건 등을 따져 소속부를 선정하는데 우량기업부에 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3년간 순이익의 평균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우량기업부 소속일 경우 대출 발생 공시 때 자금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던 사전확인 면제법인 자격을 잃은 동시에 대외신인도에도 흠결까지 생겼다.

하림 관계자는 “차입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차입금 증가와 재무건전성은 문제 될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실적은 줄어든 내수시장과 육계 가격 하락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다. 육계값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 하나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타이어뱅크 휠 고의 훼손 이어 티스테이션서도 유사 피해 발생 소비자 신뢰 추락... ‘회복 전념’

타이어업계가 휠 고의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타이어뱅크 광주 한 지점에서 고객의 차량 휠을 일부러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른 데 이어 이번엔 티스테이션에서 차량 휠 고의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타이어 전문점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한 차주 A씨는 직원에게서 휠이 휘었고 표면이 파여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직원은 “재정착해 운행시 위험하고, 1개만 교체시 차가 떨린다”고 말해 결국 A씨는 휠 4개를 56만 원에 교체했다.

그러나 최근 타이어뱅크 휠 훼손 사건을 접한 A씨는 과거 휠 교체 상황을 복기하며 해당 지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지점은 최근 타이어뱅크 사건으로 부담을 느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문제는 티스테이션은 가맹점으로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티스테이션은 가맹점 가운데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티스테이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고의로 휠을 훼손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가맹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남뉴스

앞서 타이어뱅크는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에 대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를 고발했다. 또, 본사 홈페이지에 ‘고객님께 드리는 사죄의 말씀’을 게재하고 “상무점 가맹점주가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 가맹점주가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이 늦어진다면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해 앞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이번 타이어 휠 고의 훼손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